

폭염 대응 · 태풍 비상대비 철저 당부

송하진 도지사, 도내 첫 폭염 사망자 발생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가동중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에 지난 4일 열사병으로 인한 도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제8~9호 태풍이 잇따라 북상할 예정인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는 5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오늘 이후 폭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여항과 취약계층 관리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해 폭염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어지는 태풍에도 태풍진로를 예의 주시하여 배수펌프 가동 준비, 강풍 시 선박 통제,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

입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처음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고창군의 80대 고령의 여성으로 오전에 이장의 안내로 집에 들어왔으나 오후 3시경 집 근처 밭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발견되어 119 구급차에 이송 중 사망했다.

전북도는 현재 12개 시군이 폭염경보, 2개 시군이 주의보 상황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를 발령해 도내 127명의 공무원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매일 취약 시간(오전 10~오후 2시)에 마을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전화, 문자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방재단 및 이·통장 등을 통한 농어촌 여항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이어 6~8일 기간 중 제8호 태풍 '포란시스'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되고 제9호 태풍 레기마도 발생(4일 오후 3시)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하라는 전라북도지사(송하진)의 지시에 따라 태풍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제8호 태풍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며, 폭염기간 낮 시간에 논·밭일이나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양산과 물병을 준비하는 등 폭염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태풍 시 강풍, 호우, 풍랑에 대비해 되도록 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의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저지대는 침수에 대비하는 등 태풍 내습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회,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8~10일까지 부안청소년수련원서 300명 참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포츠활동 교육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가 펼쳐진다.

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주최하고 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올바른 스포츠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초·중·고 학생 3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기수별 1박2일씩 2기수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우선

모집했다. 청소년들은 1박2일 합숙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안전교육과 체험교실 등 다양한 스포츠 이론과 실기를 접하게 된다.

이에 이번 캠프에서는 심폐기능 소생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되며 스포츠 클라이밍과 양궁 서바이벌, 요트 체험 등을 하게 된다.

또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한여름밤 즐거운 추억도 쌓게 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각종 체험을 통해 스포츠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건의 이원택 부지사 국토부 2차관 만나

전북도는 5일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폭염과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고,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를 끝나는 8월말까지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 실국장 등이 정처권 및 시군과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한빛원전, 신뢰성 있는 안전대책 없이는 재가동 반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4호 기 공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광주 클럽 붕괴 관련 유사사고 예방

도 소방본부, 취약 다중이용업소 합동 소방특별조사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는 지난 7월 27일 광주 소재 한 클럽에서 발생한 다수사상자 붕괴사고 관련 도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8월 한 달간 도내 유흥업소, 단란주점 및 유사 주점형태(일명, 감성주점)의 영업장에 대하여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생한 클럽 붕괴사고

로 당시 시설을 이용하던 이용객 12명(사망2, 부상10)이 피해를 입었고, 기타 건물 내부 복층 구조물이 파손되어 1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유흥주점 등 현황으로는 유흥주점 858개소, 단란주점 423개소 등 1281개소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00㎡이상의 대형 영업장은 23개소,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총 473개소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영업장 및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 그리고 감성주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번 합동 소방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이외에도 건축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영업장 내 내부구조 무단 변경여부, △영업장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비상구, 피난시설·방화구

획 및 방화시설의 적정여부, △영업장(건축물) 불법 증축 및 구조물 설치 여부 등이며, 특히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인 내부구조 무단변경 및 불법 증축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마재운 소방본부장은 “유흥주점 등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장소로써 이용객의 인지능력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어, 각종 재난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하며, “도내에서는 유사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재해예방 설계 꼼꼼히 챙긴다

도, 전문가 사전설계 검토 서면심의회 소집회의로 전환

전북도가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 검토를 서면심의회에서 소집회의로 개선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서면심의회로 진행했던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를 소집회의로 전환해 기술검토 소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거나 예방대책에 무방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재해예방사업은 침수, 붕괴 등 재해취약요인을 검토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설계완료 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전설계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다. 전북도는 현재 도 자연재난과장을 위원장으로 해 수자원 및 토질 등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설계초기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해 설계방향을 지도하였고, 설계가 완료되면 사전설계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최종 확정해왔다.

작년 신규사업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통해 47억원의 예산절감의 성과가 있었고, 올해도 48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일 전주 금상동 금상지구, 임실 청용면 압포지구, 순창 풍산면 유정1지구 등 3개소에 대

한 사전설계검토심의를 가졌다. 이날 사전설계검토위원회에서는 전주 금상지구는 소양천과 금상천의 합류점에 펌프장 설치여부 검토, 임실 압포지구는 평상시 물이 없는 곳에 여울형 낙차공 4개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 순창 유정1지구는 일부 배수로의 유로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전주시 금상동 금상지구는 하천폭 및 제방고가 부족하여 2005년 하천 구간에서 유휴피해가 있었던 침수위험지역으로서 금년부터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금상천 2.4km를 정비한다.

임실군 청용면 압포지구는 백이천 통수단면 부죽에 따른 제방유휴 피해 지역으로 금년부터 3년간 38억 원을 투자하여 현 하천폭 2~20m를 10~20m로 넓히고 우수관로 272m를 정비할 계획으로 압포마을 12세대 30여명의 침수위험이 해소된다.

순창군 풍산면 유정1지구는 마을 배수도가 합류되는 사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로 인한 농경지 4.76ha가 상습침수되어 내년까지 17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문비설치, 사천 좌안 축제 및 우안 보축 등 511m와 개거 542m를 정비한다.

/김진성 기자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야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지적시험 검정위원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업,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 학교별 | 주요 과정 | 지역별(자유선택) |
|-----------------|------------------------------|--------------------|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 스피치기법과라디오·스피치회화·스피치강연·스피치 | 전주, 원주, 김제, 진안, 무주 |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 스피치기법과라디오·스피치회화·스피치강연·스피치 | 군산, 서천, 부안 |
|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 스피치 지도사(기초+고급) 이강 | 정읍, 고창 |
| 전북대 익산캠퍼스(원생) |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야) | 익산, 김제 |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 스피치 기법과 리더십(야), 스피치 회화지도사(야) | 남원, 순창, 장수, 구례 |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 스피치기법과라디오·스피치강연·스피치회화·스피치 | 전주, 원주, 진안, 김제 |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고급 스피치(야), 스피치 긴장해소(야) | 전주, 임실, 원주 |
|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면접취업) | 전북, 전남, 충남지역 |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